

'2025 길림시 공원테마 반려동물 박람회' 개최



이색단장을 한 반려견 입장

8월 8일, '2025 길림시 공원테마 반려동물 박람회'가 15 일간의 일정으로 길림시 강남공원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대동산수영천하,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만남'(大东山水迎天下, 绿野萌宠汇奇缘)을 주제로 혁신적인 행사 기획, 지역간 반려동물 문화 교류 및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경관 + 반려동물 상호작용'이라는 생태 친화적 체험을 선사하며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길림시반려동물서비스협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개막식에서 길림시농업농촌국이 '길림반려동물산업-교육연합체' 설립을 선포하고 범홍강, 데니스 스크 등 국내외 반려동물 전문가 5명이 축사를 했다. 이어 경찰견 기술시연, 북방 반려동물 순례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길림성, 흑룡강성, 료녕성의 반려인들은 독특한 스타일로 꾸민 반려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며 박람회장을 가득 메웠다.

국내외 전문가, 반려동물산업 발전 논의

행사는 중국목축수의학회 송동물의학분과, 세계반려동물협회(WPA)에서 지도하고 길림농업과학기술대학과

자연 속 반려동물, 20개 테마 전시관

박람회는 공원테마의 몰입형 반려동물 축제를 표방하며 길림시 '산수정원도시'의 생태적 강점을 바탕으로 강남공원 1만평방미터의 자연공간

을 활용해 20개 테마전시관을 조성했다. 각 전시관은 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반려동물과 인간이 자연 속에서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훈련된 경찰견이 수상한 물품을 탐지하는 모습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반려동물산업 전시 + 지역 경제 활성화

200여개 국내외 기업이 박람회에 참여한 가운데 반려동물 식품, 용품, 의료, 교육 등 전 산업군을 아우르는 전시관을 운영했다. 또한 동북 3성의 반려동물 특산품을 소개하는 지역상품관과 트렁크마켓(后备箱集市)도 마련되어 현지 반려동물산업의 성과를 집중 조망했다.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 참여 유도

행사 기간 동안 세계반려동물협회 공인 국제대회, 동북 3성 반려동물 운동회, 반려동물 미팅 코너, 반려동물 패션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반려동물 행동 훈련 강좌, 이색 반려동물 예술 전시 등 전문성과 재미를 겸비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한편, 국제 순종 고양이 심사대회 부스에서는 많은 애묘인들이 고양이를 구경하며 가격을 문의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됐다.

길림농업과학기술대학 전문가팀은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영양관리 등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개최해 과학적 사육 지식을 보급했다.

지역 관광 연계... 할인 혜택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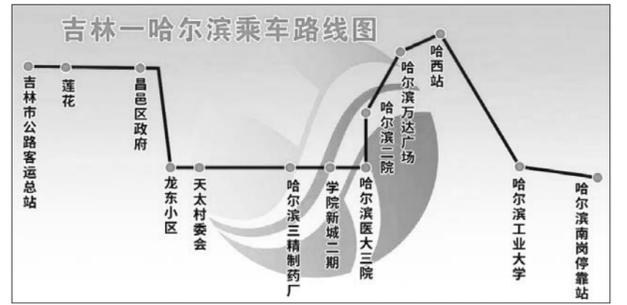
길림시는 박람회 기간중 관람객을 위해 20여개의 반려동물 우호 호텔 특별 할인, 경영진, 휴업공 등 6개 농촌 체험 시설의 식사, 숙박 할인을 제공, 참가 업체 및 초청객들은 주작산 국가삼림공원, 길림 북산 사계절스키장 등 명소 무료 입장권을 받을 수 있고 외지 관광객은 교통편 반값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10만개의 반려동물 테마 아이스크림과 5,000장의 식사 할인 쿠폰을 배포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지역 특색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체험·문화·복지'를 결합한 다각적인 모델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과 지역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강성일보

길림-할빈 도시간 버스 11일 정식 개통 -신형 친환경 배스로 두 도시 왕래 편의성 대폭 향상



8월 11일 오전 10시, 길림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신형 전기버스(T602선)가 승객들을 태우고 할빈로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로써 길림과 할빈을 잇는 도시간 버스 로선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로선은 왕복 3시간 30분 소요되는데 길림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할빈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편도 요금은 50원이며 '단방향 승차차 규칙'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였다.

길림시측 정류장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 연화, 창음구정부 등이며 할빈시측은 삼정제약공장, 할빈의대제2/제3병원, 할빈공대, 만달광장, 할빈서역 등 주요 지점을 경유한다.

첫 탑승객인 직장인 장씨는 "이제 길림에서 할빈으로 갈 때 기차표 걱정이 없게 됐어요. 출퇴근이 편리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제 길림에서 할빈으로 갈 때 기차표 걱정이 없게 됐어요. 출퇴근이 편리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방학중인 두 아이와 함께 할빈 731유적지와 할빈의 관광 명소인 중앙거리, 태양도를 관광 목표로 다녀올 예정이라는 승객 리너씨는 13일 아침 7시 표를 끊었다며 표값도 싸고 버스 시설도 훌륭하며 기쁜 표정을 보였다.

길림시교통국 관계자는 "이번 로선 개통으로 두 도시간의 인적 및 관광 자원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대, 덕해 등 인근 지역으로의 로선 확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길림시고속버스터미널측에 알아본 데 의하면 길림-할빈 도시간 버스표는 길림시고속버스터미널 매표 창구와 출행 365 App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길림-할빈 도시간 버스 문의전화는 1598117511이다. / 차영국기자



《새아리랑》

15년간의 열정과 노력, 민족문화의 꽃 피우다



《새아리랑》 공로자 시상식 현장

8월 10일,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산하 길림시조선족문화애호가동아리에서 꾸리는 내부간행물 《새아리랑》잡지 출간 100호 기념 경축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흥기 회장을 비롯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관계자와 문화애호가동아리 김문석 회장, 라순숙 부회장 및 회원 27명이 참석했으며 《도라지》잡지 전임 주필 리상학, 저명한 조선족 활영가 신승우, 시인 리광식과 윤하룡 등 현지 인사들과 연변지역에서 온 박영옥, 최성학 등 문학, 예술계 인사들도 자리를 빛내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합창으로 막을 열었다. 김문석 회장은 '15년간의 도전과 열정, 문우들과의 추억'을 주제로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 《새아리랑》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특히 작고한 허일준, 김자범, 리종광, 선우윤희, 한철근 등 30명의 문우들을 추모했다.

단일 최대포획상 우승은 9.16키로그램 물고기를 낚은 려경봉선수가 거머쥐며 상금 9,000원을 탔다. 길림시 선영구에서 온 선수 류해량은 "송화호는 경치도 아름답고 물고기도 많다. 전국의 낚시동호인들과 함께 경기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며 "전국의 낚시애호가들이 길림시에 와서 낚시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아리랑》을 통해 발표된 회원들의 작품과 《연변문학》, 《장백산》, 《중국인족》, 《도라지》, 《로인세계》 등 조선족 잡지에 소개된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고 리오로, 리광식, 최정영, 허만석 등 회원들의 개인작품집 출간 현장을 공유하며 문학적 열정을 격려했다.

이어 공로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문석, 라순숙, 송해문, 리천민, 윤하룡, 리봉옥, 박종자, 박명호, 김향양 등 9명의 회원들이 《새아리랑》 100호 발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의 영광의 꽃과 함께 영예증서를 받아들았다.

로인협회 박흥기 회장은 "《새아리랑》은 조선족 언어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5년간의 노력은 민간문학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변에서 온 귀빈 최성학은 "문학은 민족의 혼이다. 《새아리랑》이 앞으로도 조선족의 아름다운 정서를 전하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후반에는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윤하룡시인의 <새아리랑 찬가>를 시작으로 라순숙, 송해문, 리봉옥, 황혜영의 집체시朗誦, 개인 시 창작 발표와 민요공연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흥겨운 농악장단에 맞춰 즐거운 춤사위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길림지역 조선족 민간문학의 활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민족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작품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송해문, 문창호특약기자

문화예술의 향연으로 민족 화합을 그린다

— 길림시조선족연합회 강만로 민속거리서 특별공연

8월 8일 저녁, 길림시조선족연합회는 '민족문화 발굴, 아름다운 고향 홍보'를 슬로건으로 길림시 강만로 민속거리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족 전통 예술의 매력과 다민족 화합의 정신을 선보였다.

공연은 '추풍에 실린 기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길림시조선족연합회

산하 녀성회원 50여명이 전통 장구춤과 부채춤, 현대 창작곡 <빛나는 노을>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특히 상모 돌리기와 비단피춤은 현장을 환락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7월 공연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조선족 음식문화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강만로 미식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불고기, 떡볶이, 돌솥비빔밥, 랭면, 삼계탕, 순대, 김치 등 조선족 대표 음식 체험 부스도 운영되며 다민족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참가자들은 "맛과 볼거리가 공존하는 강만로에서 민족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행사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관람객 리씨(한족)는 "강만로는

이제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문화의 거리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처럼 따뜻한 화합의 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라고 감상을 전했다.

마무리 공연 <우리 함께>에서는 조선족, 한족, 만족 회원들이 한무대에 올라 민족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행사를 마쳤다.

/ 최명란, 차영국기자



전국 168명 낚시 고수 송화호에 운집! 우승 상금 10만원

8월 9일, 길림시 송화호 풍경 명소 정가구 자연수역에서 제2회 '송화호컵' 낚시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8명의 낚시 고수들이 낚시 실력을 겨뤘다.

송화호는 동북지역 최대의 인공호수로 넓은 수역과 우수한 수질, 풍부한

한 물고기 자원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매년 수만명의 낚시애호가들이 찾는 '천연 낚시 명소'로 유명하다.

송화호관리국 어업관리처 무초 처장은 이번 대회는 '자연수역, 생태낚시'의 리념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

했다. 대회 지역은 모두 송화호의 생태수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잡은 물고기는 방류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어획물은 계측후 즉시 방류되어 생태낚시의 리념을 구현했다.

북경, 중경, 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이 일찍부터 경기장에 도착해 준비를 마쳤다.

오전 8시 35분, 아침 안개가 걷히고 호수가 겨울처럼 잔잔해진 가운데 주변 산들의 그림자가 호수에 비쳤다. 심판장의 시작 신호와 함께 경기 참가자들은 능숙하게 낚시대를 던졌다. 중간중간 일어서서 줄을 감고 그물로 물고기를 건져올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총상금 21만원으로 혼합총중량상과 단일 미끼 최대포획상을 설정했다. 혼합총중량 1위는 10만원, 2위는 5만원, 3위는 2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단일 최대포획상 상금은 9천원이다.

6시간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손성룡선수가 총중량 24.35키로그램의 물고기를 낚아올려 최종 혼합 물고기 총중량 경기 우승을 거머쥐며 상금 10만원을 획득했다.

단일 최대포획상 우승은 9.16키로그램 물고기를 낚은 려경봉선수가 거머쥐며 상금 9,000원을 탔다.

길림시 선영구에서 온 선수 류해량은 "송화호는 경치도 아름답고 물고기도 많다. 전국의 낚시동호인들과 함께 경기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며 "전국의 낚시애호가들이 길림시에 와서 낚시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무송융합매체



송화호에서 펼쳐진 낚시대회